

전북 생활체육 힘찬 도약 발판 마련

전주·정읍·부안,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전북지역 클럽 8개서 11개로... 국비 21억 확보

전주와 정읍, 부안 등 전북 3개 시·군이 신규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됐다. 21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19 스포츠클럽 선정' 사업에 공모한 전주시와 정읍시, 부안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주는 대도시형으로 정읍과 부안은 중소도시형으로 선정됐다.

대도시형은 인구 20만명 이상, 5개 종목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중소도시형은 20만명 미만 3종목 이상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된 3개 시·군은 서면평가(클럽 역량·경영계획)와 발표평가(사업계획), 현장 실사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정으로 전주는 3년간 9억원(연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정읍과 부안은 3년간 6억원(연 2억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이로써 엘리트 선수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동시에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육 프로그램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해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이번에 3개 시군이 선정되면서 도내에서는 총 11개 스포츠클럽이 운영하게 됐다"며, "전북지역 스포츠클럽들이 한국형 스포츠클럽 모델 구축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고창생물권공공스포츠



전북체육회 전경.

클럽, 무주태권도원공공스포츠클럽, 전북스포츠클럽, 전주비전스포츠클럽, 군산스포츠클럽, 익산스포츠클럽, 완주 스포츠클럽, 남원거점스포츠클럽 등 총 8개 클럽이 현재 운영중이다. /정은성기자

전북대, 청소년 창의기술아카데미 참가학생 모집

전북대학교 청소년 창의기술아카데미가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제16기 청소년 창의기술아카데미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창의기술아카데미는 신산업과 관련한 주요 기술과 발전 역사, 핵심 이슈 등을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공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대는 2011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학기에 이 교육을 개최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이번 교육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가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및 드론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7월 27일에 개강해 1차 교육과 7월 29~31일까지 2차 3일의 여름캠프 등으로 진행된다.

자율주행차, 드론 교육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는 ICT 융합 스마트기술 특강

및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이공계 진로 설명회, 기업견학 등의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교육과정별로 40명. 신청 방법은 자율주행차 교육 또는 드론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과정 한 개를 선택해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수료증과 기념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청소년 창의기술아카데미 블로그(<https://blog.naver.com/tsarjoni>)를 참조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학생상담센터,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 캠페인 큰 호응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가 대중제 호러불(호원대! 러블리하고, 불타오르게!) 기간을 이용해 축제 부스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 및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약 30여 명의 재학생들의 참여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호원대 학생상담센터와 외부 유관기관이 연계해 폭넓은 상담 및 캠페인이 이뤄졌으며, 축제기간동안 재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상담으로 운영됐다.

첫째 날인 20일은 군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참여로 조기 우울선별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생명사망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캠페인에 HK 예방단이 동참해 참여 학생들의 공감과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둘째 날에는 전북서부 해버리센터와의 공동 진행으로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 설문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상담과 캠페인을 펼쳤으며,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호원대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육구강도검사, 자존감 측정검사, 시험불안검사, 의사소통유형검사, 알코올 중독검사, 성격의사결정능력검사 등 간이심리검사와 결과를 해석하는 상담 실시 및 성문화 상담실 이용안내와 학생상담센터의 HAPPY UP 프로그램

홍보를 진행했다.

이미영 학생상담센터장(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은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 기간을 이용해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을 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해 공동 진행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위기 학생의 발굴 도모와 올바른 성문화 정착의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재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하고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원대 학생상담센터는 '마음행복 프로젝트'를 구상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지원을 위해 마음알기, 마음강화, 마음성장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



다. 또한 학생상담센터 내에 성문화상담실도 설치되어 있어 성상담전문교수에 의한 재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고 사건 신고 및 조사를 실시하며, 법학전문교수에 의한 법률 자문과 필요시 지역 사회 성폭력상담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성폭력 위기관리 시스템이 이뤄져 있다. /정은성 기자

학교 밖 청소년 선도 받 벗고 나서

전북교육청 - 전주완산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1일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최종문)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선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 청소년 상담소 '징검다리'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선도 보호 및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협력 내용은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업무협력 체계 구축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선도·지원 방안 모색 등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학교 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 학습

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종문 서장은 "완산경찰서가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소 '징검다리'가 널리 알려져서 많은 학교 밖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상담소 '징검다리'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전주 객사 '중앙실림광장' 주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왔다. 개소 이후 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혜선 센터장이 1호 상담사로 나서며 지역 변호사, 청소년 전문상담사가 함께 참여해 청소년들의 각종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올해 35개교 학생회실 설치 지원

전북교육청이 학생회실 설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단위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학생회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등 총 35개교를 학생회실 지원 학교로 선정하고, 3억2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희망학교 모집 및 선정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학생자치활동 시간 확보, 학생회 예산 편성 운영권 부여, 학생자치 예산 1% 의무부담, 학생회 당선증 교부 등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 돼 있는 학교를 우선 선발했다.

도교육청은 시설 설치와 리모델링

비용, 탁자 등 비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1교당 1000만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 예산은 운영비로는 쓸 수 없다.

학생회실 설치 지원 학교는 교실 절반크기(33㎡)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학생들의 접근성이 쉽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21일 학생회실 설치 지원 학교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학생회실 공간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회실 설치 지원 사업은 학생회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학생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실천 활동을 논의하고,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시민문화강좌 '사진으로 역사읽기' 진행

전주대학교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와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은 오는 6월 3일부터 총 8주간,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강좌 '사진으로 역사읽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의 젊은 사진가 장근범 대표(사진아카이브)를 초청해 총 8주간

진행될 이번 강좌는 여제를 기록하고 내일을 예비하는 사진과 인간의 역사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마음을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6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정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